

교회일꾼 선출에 즈음하여

살롬!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저희 교회가 2년 후면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직분자 선출



계획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를 새롭게 준비하여야 하는 새로운 현실 앞에 놓여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초대교회를 가장 소중한 모델로 삼고, 그 모습을 닮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였고, 땅끝 선교를 지향하였으며, 성도의 참된 교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움직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초대교회도 일군을 뽑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사를 임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지시 하신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백만이 넘는 군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이끌어야 하는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습니다. 결국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모든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는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등을 세워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출 16장)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운행하신 초대교회도 사도들과 그들을 도왔던 집사들,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들의 선출까지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나라의 일을 행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등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원칙은 이제 일군선출을 앞둔 우리 교회

입교인들에게 주어진 원칙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세우라 하셨 습니다..(출 18:21)
바울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라 하셨습니다.(행 6:3-5) 그리고 나중에 목회서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의 자격들을 밝혀 주셨습니다. (딤후 3:1-13)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한 사람을 잘못 세움 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망치기도 하고 교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부족합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일군들을 선출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직원 선출 기간이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선출된 자는 지금부터, 선출되지 못한 분들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년 3 월 18 일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문광식

2024 년 임직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명단

장로 후보자

신임 안수집사, 권사 후보

(안수집사 3 인)

(협동안수집사 1 인, 협동권사 1 인)

이하 임직년도(동일시 생년월일)순



1.윤상준



2.박상년



3.최형석



1.박오일



1. 정경미

권사 후보자

(여자 서리집사 10 인- 이하 교회 등록 순)



1.김성희



2.이귀덕



3.배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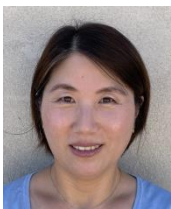
4. 최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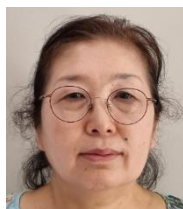
5.김선혜



6. 차은숙



7. 박현덕



8 김현순..



9.정수영



10. 문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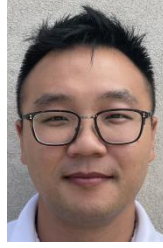
안수집사 후보자 (남자 서리집사 26 인- 이하 가나다순)



1. 권도준



2. 김수환



3. 김진만



4. 남용철



5. 마성원



6. 문승진



7. 박도호



8. 박동영



9. 송영우



10. 오재욱



11. 윤선중



12. 윤진욱



13. 이상민



14. 이주염



15. 임재관



16. 임정빈



17. 임태식



18. 정성걸



19. 차승원



20. 최윤희



21. 한중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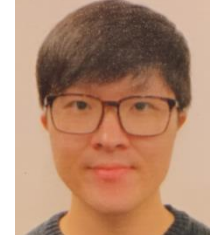
22. 한진호



23. 홍성대



24. 홍준선



25. 홍태준

26. 황태규



샬롬! 윤상준 (1964.06.22) 안수집사입니다.

시편 104 편 30 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숨쉬는 순간 순간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항상 바라고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6 절-18 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27 구역을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역동하는생명의 말씀이 있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균형있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상년



살롬! 박상년 (1964.08.08) 안수집사입니다.

다윗은 시편 34 편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염원도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입니다.

결국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 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잠언 16:9 말씀이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니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현재 2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기며 시설관리부장으로 여러 교회 시설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한마음이 되어 이 세상의 등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3. 최형석



살롬! 최형석 (1966.4.7) 안수집사입니다.

저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새롭게 하시고 고쳐 가시는 긴 삶의 여정 속에서 비록 고난과 역경,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분의 일하심에 저를 행복시키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완전하여 성경 전체를 묵상함에 기쁨을 느낍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 장 14 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좋습니다.

저에게는 하늘의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며 이 예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온 성도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의 만남과 모임에서 끊임 없이 참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나누어 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서무부장으로 섬기고 있고 19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1 박오일



살롬! 박오일 (1956.10.06) 협동안수집사입니다.

사무엘상 15 장 22 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은 저의 비전이자 삶의 모토입니다.

로마서 8 장 28 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되며 예수그리스도의 제자 됩니다.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는 당연히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실현되는 아들레이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정경미



살롬! 정경미(1967.02.11) 협동권사입니다.

저는 특별히 찬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그 분의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녹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내고 싶습니다. 더불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음이 상해 낙심하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아파하며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 장 2 절 ”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입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 되신 것 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나가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든든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령부흥회의 기회를 최소 일년에 한번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마음껏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아내며 무릎으로 회개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함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집회의 기회를 교회가 열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① 권도준



샬롬! 권도준 (1974.09.27) 집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 장 13 절-16 절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하십니다. 저는 교회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주님이 가르치신것 처럼 낮은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항상 묶어서 묵상합니다. 고린도후서 12 장 9 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 장 5 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게 있어 제가 그 분께 거하여서 열매 많이 맺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현재 20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기며 예배부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 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조명하듯이 교회의 직분이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구분해 놓은 수평적 개념이 우리 교회에도 자리잡아 12 절의 말씀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라”**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몸 되신 그리스도를 세우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② 김수환



살롬! 김수환 (1974.05.04) 집사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신뢰하고 도전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이웃들에게도 전파하여 그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3 장 16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복음의 말씀과 로마서 8 장 28 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고 특출난 자들 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을 깊이 신뢰하고 순종하며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충성을 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쓰임 받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식사시간에 어린 막내아이가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 모습은 부모님이 땀 흘려 재정을 채우고 시간을 내어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는 것 만큼이나 사랑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현재 작은 봉사를 통하여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교회 예배당 청소로 1 부 예배 성가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 안좋다 또는 크다 작다 선불리 판단받는 교회가 아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③ 김진만



샬롬! 김진만 (1988.01.19) 집사입니다.

저는 허물과 죄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자녀 삼으시고 거기다가 의롭다 여겨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의 일에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차라리 주님의 일을 함께 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욥기 1 장 21 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말씀을 특별히 사모합니다.

현재 14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기며 호산나 성가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이 열방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④ 남용철



살롬! 남용철 (1972.11.28) 집사입니다.

요한복음 12 장 24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는 저의 인생 성경구절입니다.

한알의 밀알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님 나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비전을 갖고 봉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⑤ 마성원



샬롬! 마성원 (1980.02.20) 집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모이는 건강한 공동체를 소망하였습니다. 그 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가복음 2:16-17 을 통하여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당신 스스로가 병든 자들의 의원이 되신다 하십니다.

나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지난 날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중, 단기 평신도파송선교사로 SA Ceduna 에서 원주민들을 위한 교회를 섬기며 그곳에 호주 원주민들이 복음을 믿고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선교사역을 했으며 몇년 전 다시 모교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EM 사역과 기획부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중 갈라디아서 2 장 20 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을 가장 좋아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에 합당한 말씀과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⑥ 문승진



샬롬! 문승진 (1982.11.15) 집사입니다.

제 삶에 주인이신 내 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 장 16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복음의 말씀은 저를 향한 은혜의 말씀이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꾼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교회의 새가족부를 섬기며 또한 16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전도회에서는 총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교회의 각 기관들과 성도들이 서로 잘 소통하며 비록 세대가 다양하게 있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좋은 교제 나눌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⑦ 박도호



살롬! 박도호 (1985.02.08) 집사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그리스도임을 믿기에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하박국 2 장 4 절 말씀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길 원하며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 장 9 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제 마음이 연약하여 무너지고 어려울 때 마다 힘이 되며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혼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자주 묵상하며 좋아합니다.

저는 현재 교회 행정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 다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교제하게 함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천국소망을 꿈꾸는 믿음의 식구들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⑧ 박동영



살롬! 박동영 (1979.04.19) 집사입니다.

요한복음 3 장 3 절에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 절과 6 절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 이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 장 23 절의 말씀이 말씀하듯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는 말씀으로 제가 날마다 말씀앞에서 거듭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41 장 10 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저를 믿음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는 재정부장으로 섬기며 또한 8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⑨ 송영우



샬롬! 송영우 (1975.04.08) 집사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고 최선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 장 8 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는 말씀은 저의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교회에서 4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희 교회는 소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 오재욱



살롬! 오재욱 (1985.11.30) 집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속의 은혜 안에 이끄셨으므로 제자된 저도 내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 3 장 1-2 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와 호세아 6 장 1-3 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말씀처럼 앞으로 이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그리스도를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선교부장으로 섬기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배우고 받았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급변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힘써 알고 교회를 통하여 참 진리의 신앙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11 윤선중



살롬! 윤선중 (1978.02.28) 집사입니다.

로마서 5 장 19 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 장 38 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의지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2019 년에 아들레이드 교회에 등록한 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 나누며 교회를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위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저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⑫ 윤진욱



살롬! 윤진욱 (1980.01.20)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은 개인적으로는 매일 십자가와 함께 죽는 삶이고, 사회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 가도록 가르치고 돕는 일을 내 소명으로 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 장 14 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입니다.

저는 교육부장으로 섬기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독서모임을 통해 성도들이 조금 더 신앙의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존 스토틈의 '제자도'를 읽고 토의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한 15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023 년에 저희가 가졌던 부장단 연석회의 처럼 교회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속한 당회를 포함 각 제직 부서장들과 전도회 회장과 같은 각 기관의 리더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토의 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갖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3 이상민



샬롬! 이상민 (1960.06.23) 집사입니다.

저는 제가 온전히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염원합니다.

저는 특별한 성경구절 보다 갈라디아서 2 장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사도바울의 **“할례자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됨과 사람의 의롭게 됨이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교회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고 더욱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힘써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다짐하고 생각해 봅니다.

14 이주염



샬롬! 이주염 (1979. 09.03) 집사입니다

매 순간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일서 3 장 16 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의 찬양 고백이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 장 19 절 -20 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전산행정부장으로 교회 웹을 관리하며, 호산나 성가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이 살아 숨쉬어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15 임재관



샬롬! 임재관 (1985.05.11) 집사입니다.

항상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신앙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힘써 노력합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2 장 39 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입니다.

저도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며 저희 교회가 그 사랑의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 임정빈



샬롬! 임정빈 (1988.02.16)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저를 항상 기뻐하며 쉬지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들라 하시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41 장 10 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의 말씀은 저에게 항상 힘이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성도간의 진정한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7

임태식



샬롬! 임태식 (1981.10.03)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저의 비전은 하루 하루 한걸음 한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발걸음을 옮겨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 장 5 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5 구역장으로 구역식구들을 섬기고 있고 호산나 성가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18 정성걸



살롬! 정성걸 (1974.08.20) 집사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한 삶을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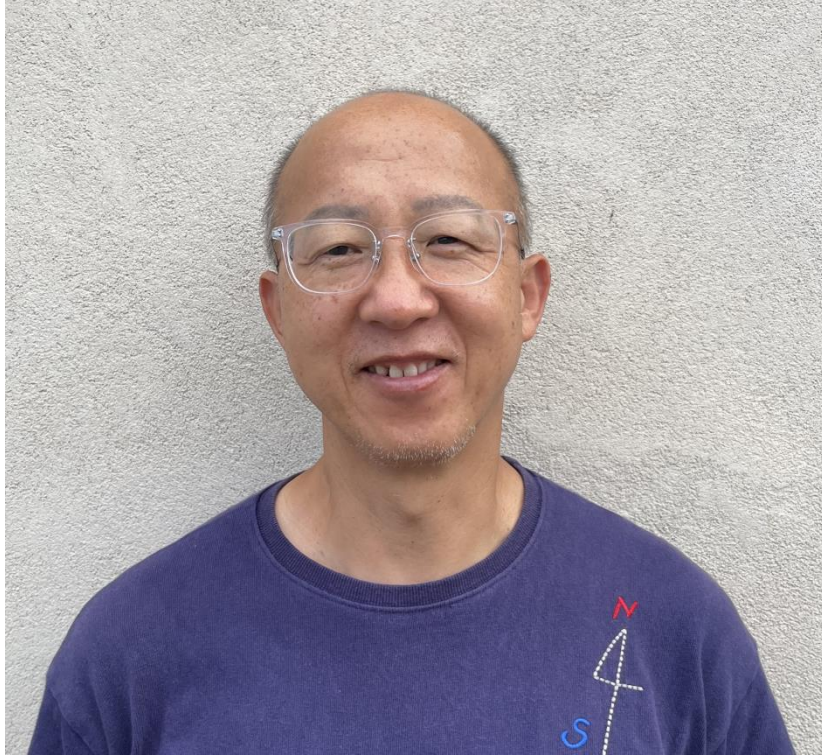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 장 13 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성경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현재는 주일 2부 예배에 노우드 성전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또한 건강한 공동체로서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들간에 원활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당회로 부터 각 제직부서, 전도회, 그리고 성도간에 충분하고 건강한 소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 차승원



살롬! 차승원 (1967.02.18)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이 곳 아들레이드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민들과 지역사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떠한 방향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 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 장 6 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저는 현재 21 구역을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바울 전도회 회장으로 또 제직부서 중 구제전도친교부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잘 균형을 이루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최윤희



샬롬! 최윤희 (1975.11.17) 집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는 (Giving)삶, 사랑하는 (Loving)삶, 섬기는 (Serving) 삶을 위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탐구하고 연결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3 장 12 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높은 뜻을 알아가고, 우리 한인 크리스찬을 이 땅 아들레이드에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기도와 노동으로 함께 좋은 시스템과 전통을 만들어 나가기로 소망합니다.

21 한중섭



샬롬! 한중섭 (1986.10.22) 집사입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그 분이 자라게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 장 10 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구절입니다.

현재 12 구역장으로 구역을 섬기며 호산나 성가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의 생명에 잇대어진 교회, 약한 지체의 몫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진호

한진호(1961.12.28) 집사님 께서는 최근 부친이 소천하심으로 이를 위해 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홍성대



샬롬! 홍성대(1984.11.12) 집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피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에게 제가 사모하는 말씀을 마음껏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수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디모데 전서 1 장 12 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사도바울의 말씀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저에게 맡기는 직분이라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이라 생각하며 제 비전을 펼칩니다. 현재는 1 구역장을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사모하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 1 장 9 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로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교회를 향한 바램과 저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모인 공동체로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외로운 구성원들까지 세심히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4 홍준선



살롬! 홍준선 (1983.05.14) 집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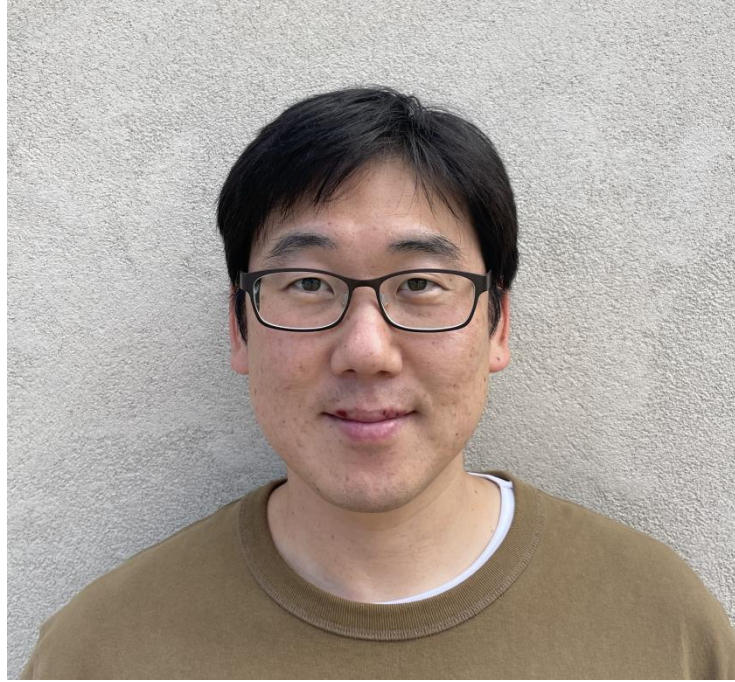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사야 58 장 11 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는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현재 다윗 전도회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독서 모임을 통하여 존스토트의 '제자도'를 읽으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려고 더욱 그리스도를 알려는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저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에 더욱 힘쓰며 거듭 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5 홍태준



살롬! 홍태준 (1983.06.29) 집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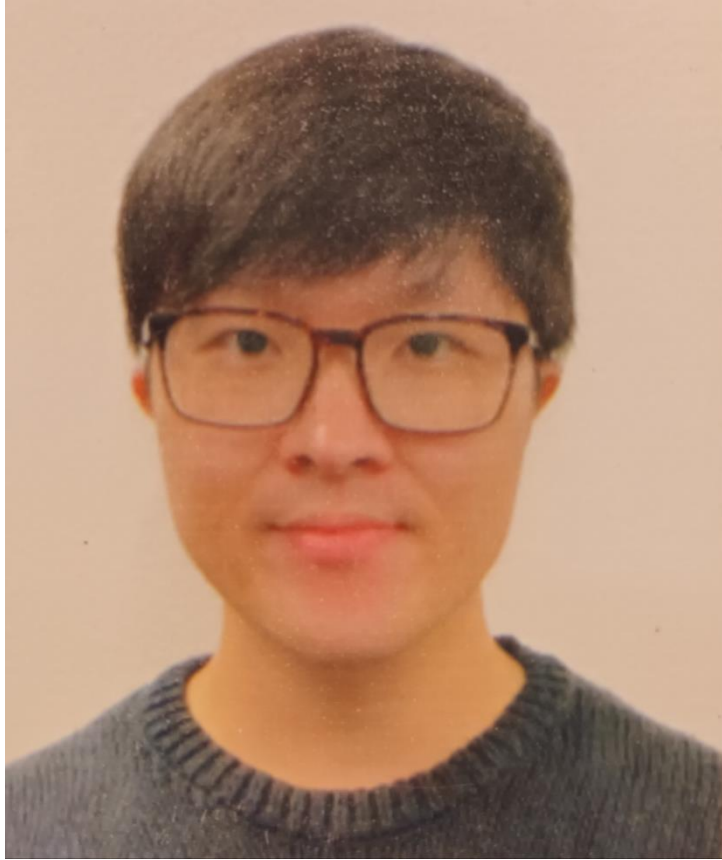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 있는 약하고 소외 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 장 7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순종하기위해 노력합니다.

현재 호산나 성가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항상 약자와 소외된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고 먼저 다가와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먼저 그러한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 황태규



살롬! 황태규 (1986.04.25) 집사입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지니라”

라는 잠언 16 장 9 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제 길을 향한 제 마음의 계획이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해 동안 청년부를 섬기며 느꼈던 건 다양한 세대가 다양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독려해 주는 것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세대별 교류의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



샬롬! 김성희 (1972.01.05) 집사입니다.

항상 제 스스로 과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해 보지만 그때마다 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비전을 갖지 못한다 였습니다. 다행히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고스란히 전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래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뿔뿔(민수기 21 장 9 절)을 눈을 들어 바라보았듯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해 저의 노력으로 살아보지만 결국 아버지의 택하심과 세우심이 없이는 어떤 노력도 열매를 맺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 장 16 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현재 저는 청년부장으로 청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 주가 주인되시고 말씀이 살아서 숨쉬는 생명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들레이드 교회가 이러한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스도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02

이귀덕



살롬! 이귀덕 (1968.05.07)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찾기위해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이사야 26 장 3 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입니다.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레이드 교회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03 배순복



샬롬! 배순복 (1966.12.02) 집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희에게 빛과 소금 되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소멸 시키지 않는 빛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 편 1 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의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현재 저는 루디아 전도회와 새가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대를 읽고 로마서 12 장 2 절의 말씀처럼 세대는 본받지 않고 변화는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율타리 안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안에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04

최보선



샬롬! 최보선 (1974.03.03)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더욱 닦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 장 2 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현재 7 구역 권찰로 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자들의 모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인 동시에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 활성화 되기를 원합니다.

05

김선혜



샬롬! 김선혜 (1974.11.22) 집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저의 아버지이시며 저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주의 뜻을 따라 그 뜻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 마음의 계획하는 길을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16 장 9 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현재 저는 1 부 코람데오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고 마리아 1 전도회 총무그리고 MIPI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세워주고 위로하며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차은숙



샬롬! 차은숙 (1970.05.01) 집사입니다.

역대상 4 장 10 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의 야베스의 기도처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호주로 저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분이 계획하신 곳에 저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3 장 5 절-6 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번 일꾼 선출에 선뜻 마음을 내놓지 못하고 많이 망설였지만 말씀에 충성 된 일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모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박현덕 (1973.01.21)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 믿음 생활을 해나가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주위 이웃들을 섬기며, 좀 더 넓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사명도 감당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사야 41 장 10 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성경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상황에서 담대히 도전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루디아 전도회에서 부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고 3 구역 권찰로 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인 만큼 서로를 사랑하며 배려할 줄 알고, 섬기며 서로 나눔을 실천하는 곳으로, 저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순



샬롬! 김현순 (1962.05.19)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영혼구원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 장 16 절-18 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전하신 뜻에 순종하기위해 노력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불쌍한 영혼을 구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수영



살롬! 정수영 (1966.02.17) 집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3 장 14 절 말씀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은 생명을 만들어 낸다 합니다. 저의 비전은 사랑으로 섬김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도 또한 베드로전서 4 장 8 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입니다.

그리스도인 이라면 우리는 누구나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교회의 성도들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처럼 서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늘푸른학교와 유아유치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문정아



샬롬! 문정아 (1972.07.25) 집사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을 통해서 제 노력이 최선이 아닌 경우를 경험합니다. 내 자아를 의지하고 내 이성과 통찰을 의지하여 그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열심을 다하면 왠지 실수가 많고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께 순종하면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삶이 풍성해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시편 23 편 말씀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직분은 지위(hierarchy)가 아니라 역할 (role) 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12 장 12 절 이하의 말씀처럼 교회의 성도는 우리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지체입니다. 직분이 주워지든 주워지지 않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교회)인 것처럼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 건강한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수요기도회 피아노 반주로 섬기고 있습니다.